



보성군, 생태계 고려 '연안 바다목장 조성사업' 추진

매년 10억 씩 5년간 투자 벌교꼬막 자원회복



보성군은 지난 26일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한국수자원관리공단 갯벌 전문가, 어촌체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심의회'를 가졌다.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은 벌교읍 여지만 일원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국비 25억 원을 포함한 50억 원을 매년 10억 원씩 투입하여 바다생태계를 고려한 체계적 관리로 꼬막 자원회복 증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해 2월에 한국수자원관리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다양

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고 깨끗한 갯벌생태를 유지하고 있는 여지만 청정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여지만 갯벌의 지역 특성에 맞는 품종 선택과 서식 적자를 1차적으로 조사하여 갯벌형 연안바다 목장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 작업을 실시했으며,

여지만 해역에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해양환경 특성조사, 해양생태 및 생물자원 기초조사, 갯벌 특성조사 등 심층적인 분석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연안바다 목장조성사업이 완료되면 해양생태계 복원과 수산자원 증강으로 어업생산성이 향상되어 풍요로운 어촌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여지만 청정해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수산자원 증강으로 잘사는 어촌을 만들고 벌교꼬막 문화사업 투자지점과 연계된 벌교꼬막의 생산기반 혁신화와 벌교꼬막 브랜드를 활용한 관광홍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장성미래농업대학 신입생 모집

친환경농업·포도·농촌관광 3개 학과 운영

매년 수준 높은 교육과정을 운영해 농업학사를 배출하고 있는 장성미래농업대학이 신입생을 모집한다.

장성미래농업대학은 오는 4월부터 친환경농업, 포도, 농촌관광 3개 학과를 운영할 예정으로, 내달 16일까지 이에 참여할 교육생을 과정별로 50명씩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11년째를 맞는 장성미래농업대학은 분야별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선도 농기를 초빙해 현장 활용사례 중심의 이론과 실습을 중심으로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매년 농업 트렌드와 농업인의

선후도를 고려해 2개 과정의 학과를 운영해 왔으나, 올해는 다양한 교육 수요를 폭넓게 충족하기 위해 1개 과정을 늘려 총 3개 과정을 운영한다.

'친환경농업학과'는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친환경 농법 보급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의 수요를 반영해 올해 처음으로 개설됐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업의 기초 원리부터 유기농자재를 활용한 농법까지 알려준다.

'포도학과'는 이상 기후로 인한 착색 불량 등 재배에 어려움을 겪는 포도농가들을 위한 과정으로, 엘로우프루트 특화단지(청포도 신규파인) 사업과 연계해 인정생산

기술 교육 지원한다.

'농촌관광학과'는 높아지고 있는 체험·관광 부가가치를 반영해 농촌 체험마을 운영 프로그램 기획, 우리 지역문화 비로알기, 미인드십 교육이 진행된다. 소비자가 다시 찾는 농촌체험 관광마을 육성에 대한 과정으로 관련 시설 종사자들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장성군은 교육의 내실을 높이기 위해 교육생의 출결 상황을 엄격히 관리하고, 우수학생 선발제를 도입해 학습 집중도를 높일 방침이다.

교육은 4월부터 12월까지 학과별로 총 20회, 100시간 과정으로 운영된다. 장성에 거주하는 농업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3월 16일까지 농업기술센터에 입학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장성=반정모 기자

활문화 교육과정 홈페션, 천연화장품 과제 전시 및 7종의 섬 전통음식 개발요리, 꽃차, 비트차 시음 등 농산물 가공품·시범사업 성과품 전시 등 참석자들에게 화려한 불거리, 먹거리를 제공하여 호평을 받았다.

생활개선신인군연합회장(김경희)은 "급변하는 시대에 농업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여성농업인 스스로 역량강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이번 교육으로 우리의 역할을 다짐하고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소통교육을 통해 여성농업인들이 지역의 리더로서 힘을 모아 올 한해도 풍년 농사 및 행복한 농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군, 2018년 청년정책 추진 가속화

4개 분야 75개 사업 165억원 투입

영광군은 청년이 살기에 매력적인 영광을 비전으로 청년고용 확대, 청년복지 증진 등 4개 분야 75개 사업에 165억원을 투입하여 2018년 청년발전 시행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청년발전 시행계획은 지난해 수립한 청년 발전 기본 계획(2018~2022)을 토대로 청년 고용 창출 장려금 지원, 농촌 청년 사업

가 양성 확대, 청년 취업활동 수당 지원, 사회 초년생 주거비 지원 등 다각적인 청년정책을 담고 있다.

청년 희망 플러스 통장사업, 청년 싱크탱크 운영, 청년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등은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청년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2일 청년활동 생태계 조

영광=서희권 기자

신안군, 여성농업인 소통교육 실시

수납정리 전문교육으로 농촌 생활의 질 향상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쉽고 재밌는 정리비법'이라는 주제로 전문 강사를 모시고 특별 강연을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가정관리로 여성농업인의 농촌생활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마련됐

신안군은 농업·환경·문화를 앞장서고 있는 여성농업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2월 26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14개 읍면 200여명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소통 교육을

으며,

농촌 체험 프로그램으로 많이 활용 가능한 향토로 힐링 할 수 있는 디퓨저 교육도 이어 진행했다.

특히 부대행사로 여성농업인 생

함평군, 권역별 친환경 벼 재배 순회교육 실시



경·벼 재배기 숲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전라남도, 전남농업기술원과 연계하여 농약 허용물질 관리

제도(PLS)와 우수농산물관리 제도(GAP),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과 친환경농업 주요 정책, 고품질 친환경 벼 재배기술 교육 등으로 진행

된다.

군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추진을 위해 유용이생물, 농산물안전성 분석실, 농기계임대 지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안 군수는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은 우리 농업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과제로 친환경농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며 "올해 친환경인증 목표 2,055ha 달성을 위해 유기면적 확대와 품목다양화에 모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구례군, 인구 늘리기 일제 캠페인 전개

구례군은 지난 23일 장날을 맞아 구례 5일 시장을 중심으로 인구 늘리기 일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2012년 이후 계속

구 현황과 인구 유자의 중요성 및 출산 장려 지원 등을 군민들에게 홍보했다.

군은 인구 문제의 해결책으로 출신율 높이기를 제1과제로 정하고

파격적인 시책들을 준비 중이다. 특히 ▲산모 택시비, ▲출산 축하 선물, ▲인신지원금, ▲일반산후조리원 이용료 등의 다양한이고 실질적인 신규 시책을 발굴하고, 옛날 이야기 1,000만 원으로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급하는 조례도 개정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 개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앞장서겠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를 이끌어 왔습니다
내일의 에너지를 주도해 가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한빛원자력본부